

평생, 땅의 농부로 산

원경선(元敬善) 이사장 - 3 -

박 창 근

〈본회 고문/한국환경보호협의회 위원장〉

3. 원경선님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인물

원경선님을 생각하면 언뜻 떠오르는 두 인물이 있다. 한분은 동학의 창시자인 최제우 선생님이요, 또 한분은 한경직 목사님이시다.

원경선님이 농부, 농민임을 자칭하시고 농촌에 큰 관심을 기우리신 것이 최제우 선생을 생각하게 되고, 원경선님이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 기독교적 삶을 사시는 것이 한경직 목사님과 비슷하게 생각되기 때문이다.

최제우(崔濟愚) 선생은 어려서부터 경사(經史)를 공부하여 학문에 정진하다가 구도(求道)행각에 나선지 10년 만에 울산(蔚山) 유곡(裕谷)에 은거, 수도에 들어갔다. 수도한 끝에, 그리스도교적 영향과 유불선(儒佛仙)의 장점을 융합하여 '시천주(侍天主) 사상'을 핵심으로 한 '인내천(人乃天)'의 교리를 완성하고 동학(東學)을 창시했다.

미증유(未曾有)의 광범한 민중의 무장봉기로 일어난 동학(東學) 농민운동(農民運動)은 1년 동안에 걸쳐 30~40만의 희생자를 낸 채 끝났으나, 이들의 개혁의지는 이후의 정치에 큰 영향을 끼쳐 위정자의 반성과 각성을 촉구하여 갑오개혁(甲午改革)의 정치적 혁신을 가져왔다.

여기서 잠시, 동학의 농민운동을 본다.

1876년 개항 이후 일본은 조선에 대한 경제적 침투를 감행하여 조선의 시장화 하는 한편, 조선에서 쌀

을 반출해 감으로써 물가를 자극하여 농민들의 생활을 이중으로 억압하였고, 일본인 어부들의 횡포는 조선 어민의 생활을 위협하였다.

뿐만 아니라 일본 기선(汽船)이 조선 연안에서 무역에 종사함은 물론, 세미(歲米) 운송을 위한 기선의 도입으로 종래의 조군(漕軍)과 선상(船商)은 몰락하게 되었고, 그 위에 세미운송의 책임자인 전운사(轉運使)의 횡포 또한 막심하였다.

이러한 절박한 사정 속에서 탐관오리의 횡포는 갈수록 가중되어 백성들은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

농민을 중심으로 한 고부군민은 학정을 더 이상 견디지 못하여 동학의 고부접주(古阜接主)로 있는 녹두장군(綠豆將軍) 전봉준을 선두로 마침내 울분을 터뜨려, 저 유명한 동학혁명이 일어난 것이다.

필자가 여기에서 원경선님을 농민운동의 원조격인 최제우 선생님과 비유하는 것은 일찍부터 농민의 눈 떠주기에 주력한 것이 일제의 강압과 나라 안의 불평부당을 뒤엎으려 한 최제우 선생의 뜻과 비슷하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방법은 서로 다르지만 농민을 위한 삶이 같기 때문이다.

한경직(韓景職) 목사는 복음주의적 신앙관과 일생을 검소하게 생활해 온 크리스천이었다. 그는 또 개신교계의 최고 원로이며, 한국 최대교회의 목사이면서도 교회 안팎의 '높은 자리'를 탐하지 않은 '한국 목회자의 표

상'으로 꼽힌다.

한경직 목사는 일평생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고 경기 광주군 남한산성 인근 영락여자신학대 기숙사에 기거하며 말년을 보냈다. 개척교회 목사를 만나면 입고 있던 옷을 벗어주기 일쑤였으며, 항상 소매 끝이 닳은 양복을 입고 다닐 정도로 청빈과 겸손을 잃지 않았다.

그의 이런 인간적인 매력 때문에 종교와 정치의 분리를 주장하는 한 목사의 입장에 동의하지 않는 개신교 인사들도 그에 대한 존경심을 잃지 않았다. 특히 보수진영을 상징하는 한국교회의 산 증인으로 일반인들에게도 뚜렷하게 각인돼 있다.

한 목사는 스스로를 낮추는 사람이었다. 한국 개신교의 얼굴로 추앙받으면서도 “자기 합리화를 피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자서전을 쓰지 않았다. 영락교회에서 절대적 권위를 가진 존재였지만 목회자인 아들에게 교회를 물려주려는 생각도 갖지 않았다.

오직 자신이 좋아했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데살로니가전서 제5장 16~18절)는 성서 구절처럼 살려고 노력한 개신교의 스승이다.

원경선 님도 한경직 목사님의 사상과 걸어오신 길이 비

슷하다.

더욱, 재미있는 것은 한경직 목사님이 종교계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템플턴상’을 수상(템플턴상은 미국의 사업가 존 템플턴에 의해 제정되었는데, 세계적 권위를 자랑하는 노벨상에 종교 부문이 없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해 온 템플턴은 사업이 잘 되자 1972년 템플턴 재단을 세우고 그 기금으로 3만4천 파운드의 상금을 내놓았다. 그 상금은 현재 일백만 달러에 상당하는 템플턴상의 기금이 되었다.) 한 것과 같이 원경선 님도 환경 분야 노벨상인 ‘글로벌 500상’을 받으신 것이다.

한경직 목사님은 기회 있을 때마다 목사들에게 “목사는 모름지기 겸손하고 성실해야 하며 생활화된 설교로서 그리스도의 산 증인이 되어야 한다. 교역자란 먼저 그 자신이 구원받은 자로서 자신의 생활이 산설교임을 기억해야 한다. 목사는 천국의 문지기로서 그 자신이 먼저 천국에 들어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부름 받은 소명감이 분명하여 신령한 눈이 날마다 밝아져 보는 것이 분명한 비전의 사람이어야 한다...”고 강조하셨는데, 이 말의 내용을 원경선 선생님이 그대로 실천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K)

〈끝〉



어느 행사장에서의 원경선 선생님 -오른편에서부터 신응배 박사, 원경선 선생님, 최열 환경재단 대표 그리고 필자